수행 시 찾아오는 魔章은 어떤 것일까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에서 제시하는 수행의 실천덕목은 그 중심이 지관(止觀)에 있다. 이는 육바라밀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하나로 묶어 하는 말이지만 대승경전의 중요 수행법으로 통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천태지의는 〈법화경〉을 의거하여 마하지관을 제시하였고, 〈능엄경〉의 수능엄삼매도 사마타 삼마발제의 지관이며 〈원각경〉의 삼관이십오륜(三觀二十五輪)도 지관을 응용하는 수행법이다.

기신론에서도 수행의 5문 가운데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대목이 지관에 관한 수행이다. 특히 지관을 닦을 때 나타나는 마군에 경계를 식별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이 대목을 흔히 '변마장(辨魔章)'이라 부른다. 〈능엄경〉에서 전체 10권 가운데 9권과 10권은 변마장이라 하여 수능엄정을 닦을 때 오음(五陰)이 차례로 녹아 없어진다는 내용이 설해져 있다. 색음(色陰)에서부터 시작하여 식음(識陰)이 녹아 없어진 때까지 한 음(陰)이 없어질 때마다 10가지씩의 마경(魔境)이 나타난다 하여 도합 50변 마장이라 한다.

원래 마(魔)란 범어 'mara'를 마라(魔羅)로 음사하여 줄인 말이다. 〈지도론〉에는 마에 대해 설명하기를 "지혜의 목숨(慧命)을 빼앗고 도법을 수행하고 공덕을 쌓고 선의 근본을 부수는 것을 마(魔)라 한다"고 하였다.

〈지도론〉에서는 마의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번뇌마(煩惱魔), 음마(陰魔), 사마(死魔)와 그리고 타화자재천마(他化自在天魔)라 하였다. 번뇌마와 음마는 인간에 깃들어 있는 백팔번뇌와 인간을 구성하는 오온(五蘊)을 마로 보는 것이다. 사마는 죽은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번뇌마 음마와 함께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이다. 다만 타화자재천마는 외적 세계를 지배하는 일종의 신류(神類)로서의 마이다. 타화자재천은 욕계의 가장 위에 있는 천상으로 여러 가지 쾌락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낙원으로 묘사되는 천상인데 이곳에 파순(波旬)이라는 마왕(魔王)과 그 무리가 있어 인간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성자의 법을 싫어하여 수행자를 타락시킨다 한다. 〈기신론〉에서의 변마(辨魔)의 이야기는 삼매(三昧)와 관련지어 설명되고 있다.

"삼매에 의하여 법계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중생들의 몸과 평등하여 둘이 없는 경지이다. 이를 일행삼매(一行三昧)라고 한다. 진여가 바로 이 삼매의 근본이다. 만약 사람이 진여를 닦으면 점점 한량없는 삼매가 생긴다.

선근 없어 나타나는 마군·외도들
마음서 기인됨 알면 경계 사라져

그러나 혹 어떤 중생은 선근의 힘이 없으면 마군과 외도 귀신들의 어지럽힘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타났던 경계가 곧 없어지고 더 이상 시달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

다시 선정을 닦는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마경을 설하고 있다. 천인의 모습이나 보살의 모습, 나아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그럴듯한 법을 설한다. 육바라밀을 설하고 혹 평등하고, 텅 비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없으며, 원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으며, 인과(因果)의 이치마저 벗으나 절대적으로 비워 고요하기만 한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열반이라 설하는 진짜 같은 그럴듯한 사이비성 장면이 나타나는 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 지나간 일이나 미래의 일을 알며, 남의 마음을 알기도 하며, 변재가 자유자재하고 그러한 것으로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 하며, 사람들을 화를 내다가 금방 웃게 하는 등 성격이 괴팍스러우며 무절제한 생활을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인정이 너무 많거나 잠이 너무 많으며, 병이 자주 나며 그 마음이 게으르고 혹은 갑자기 정진을 시작하다가 이내 그만두고 신심을 잃어버려 의심과 걱정에 빠지는 수가 있다. 수행을 잘 하다가 그것을 버리고 잡된 일을 시작하여 세속적인 일에 집착하게 되어 온갖 일에 얽매여 삼매를 잃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참된 삼매가 아니라 한 것이 〈기신론〉의 변마의 내용이다. 〈끝〉

법보시는 중생의 마음 고통 없앤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⑤① 법보시란 무엇인가

法施品第十四(법시품제십사)

佛智處虛空 大悲為密雲
(불지처허공 대비위밀운)
法施如甘雨 充滿陰界池
(법시여감우 충만음계지)
四攝為方便 安樂解脫因
(사섭위방편 안락해탈인)
修治八正道 能得涅槃果
(수치팔정도 능득열반과)

…財施除眾生身苦。法施除眾生心苦。無量劫財施為得法施果。(재시제중생신고。법시제중생심고。무량겁재시위득법시과。)

번역

법보시에 대한 품 제 14.

부처님 지혜는 처처에 허공이라면 대비심은 비밀의 구름

법보시는 감로와 같아 오음(五陰) 18계(十八界) 연못 가득 채우누나.

사섭법(四攝法)을 방편으로 안락과 해탈의 인연 삼고 팔정도(八正道)를 닦으면 능히 열반과(涅槃果)를 얻는다네.

재물의 보시는 중생의 육신 고통을 제하며, 법보시는 중생의 마음 고통 제합니다.

해설

대장부론의 전체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다. 1부는 총 14품까지이며, 2부는 29품까지이다. 2부는 내용이 각 품마다 짧은 편이어서, 전체 내용은 1부가 양이 많은 편이다. 지면상 13품의 마지막 부분의 원문과 14품의 전체 내용을 싣지 못하였다. 다만 13품의 간략한 해설과 14품의 중심 내용인 게송 부분을 싣고 번역하였다.

13품의 후반부 내용은 보살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보살이 부처님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자비심이라고 하였다.

13품의 본문에는 보살이 자비심을 통해 '위없는 보리방편이 손에 있는 것과 같으며,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어 능히 다라니를 드러내고, 십지(十地)를 얻으니, 자유자재하여 응당 부처님 같은 줄 알 수 있다.(無上菩提便如在手中無異。得住無生忍者。能顯現陀羅尼得住十地。自在當知如佛)'고 하였다. 그러나 무생법인(無生法忍)이나, 다라니인 총지(摠持)나, 십지(十地)는 실체적으로 확증시킬 수 없는 내면의 경계라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적 수행의 성취는 보살의 개인적 수행의 과위(果位)이고, 이 수행의 과위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하다. 중생이 바라볼 때 부처와 다름 아닌 존재, 보살이 해답일 수밖에 없다. 부처는 바로 실천적 근간인 보살의 자비심임이 확증된 자리다.

이렇게 13품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법보시에 대한 설명으로 제바라 보살은 〈대장부론〉 1부를 끝맺는다.

지금까지의 보시는 재물보시가 중심이었다. 재물 보시는 중생의 육신의 고통을 제하는 자비심의 실천이라면 14품의 중심 내용인 법보시는 바로 중생의 마음고통을 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중생구제가 어찌 법보시를 통한 마음의 고통을 제하는 일에 국한되겠는가 하는 강력한 반어법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수행자들이 법보시를 통해 중생의 마음 고통을 덜어주기는 해도 육신의 고통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인색한 까닭이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재물 보시 없는 법보시란 새에게 있어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것과 다름없음을.

이상으로 〈대장부론〉 1부를 마치며, 2부는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자 한다. 〈끝〉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어머니
어머니를 불러보면 먹먹하니 울고싶다

幼年의 봄

강 건너
아지랑이
그리움처럼 아른거리고

뒤뜰의
살구꽃이
그림처럼 넉넉한데

개울가
버들피리는
배고픔으로 왜 들리는지

아이는
감나무 밑에서
허기진 봄을 줍습니다.

노랑나비가
싸리울 밖을
개나리꽃잎으로 떠다니고

뜰 가득
여린 햇살이
졸음처럼 누웠어도

토담집
긴긴 하루는
끼니 기다리는 맘처럼 왜 더딘지

아이는
빈 솥 인줄 알면서도
솥뚜껑을 다시 만집니다.

인도에 머물었을 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쓴 글이다. 그 당시 나는 어찌나 한국이 그립고 고향 산천이 그리운지 비실비실 울먹이며 즐겨 부른 노래가 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하늘 끝닿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아마도 〈반야심경〉의 염불만큼이나 자주 "고향땅"을 그리며 울먹이던 노래였다.

해외에 머문 15년이 내 인생에 있어 반듯하게 넉넉하게 열린 세상을 안겨주었지만 눈물도, 아픔도, 쓸쓸함도, 타는 목마름도 널려 있었음을 밝혀둔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둑을 만나고 함께 여행하던 노인 둘이 침대 밑에 삽과 곡괭이를 숨겨 나를 죽이려 했던 끔찍한 일도 겪게 된다. 말라리아에 쓰러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설사와 심한 거식증세로 의식을 잃은 적도 있으며 티베트에서는 고산증세로 고통의 늪에 빠져 삶에 마침표를 남길법한 일도 겪는다. 그럴 때마다 절대 고독의 지친 구도자에게 힘이 되고 의지처가 되었던 것은 간절심으로 모으는 '무(無)자 화두'였고 어린 시절 어머님의 교훈적인 사랑이었다. 어린 시절, 형과 나는 남의 집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두 개를 따 아궁이 불에 구워 달라며 어머니에게 내밀었던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누가 언제 왜 옥수수를 두 개나 주었는지 따져 물었고 형과 나는 당황하여 남의 밭에서 주인의 허락없이 훔쳐 온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구운 옥수수가 먹고 싶어도 훔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옥수수 따온 곳에 가져다놓고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빌라는 회초리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

형과 나는 따온 옥수수 대궁이(심)에 긴 잎으로 따온 옥수수를 겨우 묶어두고 옆집의 옥수수 주인집을 찾아 눈물을 찔끔거리며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그때 집안으로 들어서며 우리 형제는 분명히 보았다. 부엌문에 반쯤 몸을 가린 채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형과 나를 번갈아 안아주며 어머니는 띠엄띠엄 조용히 타이르는, 그러나 힘이 실린 삶의 좌표가 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 "훔치지 말 것, 거짓말로 꾸미지 말 것, 배고프고 힘들어도 노력으로 이겨낼 것."

하여, 나는 옥수수의 교훈으로 훔치는 일, 거짓으로 꾸미는 일, 힘들어도 노력으로 이겨내는 일을 실천해 왔다.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비교적 옥수수의 교훈을 삶의 좌표로 삼아 부끄러운 흥정이나 타협을 멀리하며 고집스럽게 원칙과 기본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

유년시절의 교육은 평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은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살아 움직이는 교과서이자 어둠을 밝히는 등대 같은 길잡이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가셨지만 부처님처럼 내 마음속에 빛으로 연꽃으로 자리한다. 어머니! 어머니를 길게 불러보면 가슴이 먹먹해 울고싶다.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일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 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031-255-0066 | 010-3045-0085

부설 태극기 안에 담긴 행복한 삶의 지혜

동양사상의 꽃인 天, 地, 人 삼재사상(명리학, 풍수학, 한의학) 醫聖 이제마의 사상의학과 사암도인의 오행침법 전수 동,서양 철학과 현대물리학을 근본도리에 회통 강의

무문관 傳法講主 釋 眞 性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능각정사
- 법 명 : 도천(황경목)
- 주 소 : 부산 서구 시약로 61-19 (서대신동 3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태징



대북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